KOTRA 설명회 자료 11-034

제8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 정책 -

2011. 11. 2 (수)

주최 :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주관 : kotra INVEST KOREA

행사 개요

○ 일시 : 2011. 11.2(수) 10:00～11:30
○ 장소 :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로즈룸 (B1F)
○ 주제 :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 정책
○ 주최/후원 : KOTRA (Invest Korea) / 지식경제부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주요 일정	비 고
10:00～10:05	개회사	IK 커미셔너
10:05～10:10	환영사	지경부 투자정책관
10:10～10:40	기조강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
10:40～11:30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 서울여대 경영학과 이성봉 교수 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민현기 전무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정무섭 수석연구원
11:30～12:30	중식 제공	자유 네트워킹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 정책

2011. 11. 2

모 종 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목 차>

1. 서론 ·····1

2.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가. 국제투자발전경로 시각 ·····2
나. 투자자금순환 시각 ·····2
다. 투자추진체계 개선의 시각 ·····3

3. 우리나라 OFDI/IFDI의 동태적 변화 추이와 상호 연계성 검토 ·····4
가. 더닝의 절충이론과 투자발전경로 패턴 ·····4
나. 우리나라 OFDI/IFDI의 동태적 변화추이와 상호연계성 검토 ····5
다. 상호 연계성 활용을 통한 양방향 투자 활성화 방안 ·····8

4. 사모펀드 국제화를 통한 양방향 투자 확대 모색 ·····12
가. 사모투자펀드와 외국인직접투자 ·····12
나. 사모펀드에 의한 국제투자 동향 ·····13
다. 사모펀드 국제화를 통한 양방향 투자 활성화 방안 ·····15

5. 국내통합관리와 국제협력을 통한 양방향 투자 활성화 방안 ·····17
가. 통합관리를 위한 양방향 투자 제고 방안 ·····17
나. 국제협력을 통한 양방향투자 확대 방안 ·····19

6. 결론 ·····20

1. 서론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취해왔던 우리나라가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001년 이후 100억 달러 전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함.

□ 그러나 2010년의 비교적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실질적인 내용, 한국 경제의 외국인직접투자 수용능력, 경쟁국 실적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부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한 것에 비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오히려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직접투자 수지는 지속적인 악화 추이를 보임.

□ 최근 한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선진국 시장이 침체하면서 구매력이 증가하고 내수 시장이 확대되는 신흥시장으로 진출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과 해외직접투자 실적간의 불균형은 정부가 기존의 국제투자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함.

□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정책은 독립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양방향 투자에 상호 연계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정책은 양방향 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양방향(inbound/outbound) 투자를 동시에 촉진하는, 특히 아웃바운드 투자를 매개로 한 인바운드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2.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직접투자의 상관관계는 국제투자발전경로 (Dunning & Narula, 1998), 투자자금순환(Sutherland & Matthews, 2009, Kant, 2009 등), 투자정책추진체계의 3가지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음.

가. 국제투자발전경로 시각

□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투자 패턴이 변화한다는 것이 국제경영학의 주요 연구 결과임 (Dunning & Narula, 1996).

- 경제개발이 진전하면서 경제발전 초기에는 미미한 국제투자 활동이 국제투자가 확대되며(인바운드 투자, 그 다음에는 아웃바운드 투자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발전 패턴임.

□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투자의 동태적 변화 추이를 설명하는 국제투자발전경로 이론에서 양방향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음.

- 국제투자발전경로 이론은 양방향 투자의 확대 요인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내부 투자활동, 산업내 투자(intra-industry investment) 활동을 강조

나. 투자자금순환 시각

□ 투자자금순환은 해외 법인의 자금(본국 자금 또는 해외 수익)이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현상으로 아웃바운드 투자가 인바운드 투자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통로임.

□ 국내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F)가 해외 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 사모펀드 조성을 통해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음.

□ 사모투자펀드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사모투자펀드의 국제화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모투자펀드 국제화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투자추진체계 개선의 시각

□ OFDI와 IFDI 정책 추진 체계에서 상호 중복되는 기능,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찾는 등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양방향 투자 정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통계관리, 투자지원 등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직접투자의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수출, 수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촉진 등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국내 기관들 사이의 정책 조정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방향 투자의 상호 보완성을 최대화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양방향 공동투자펀드의 설립, 양방향 IR(투자설명회), 투자자유화를 넘어선 투자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의 국제협력을 통해 inbound/outbound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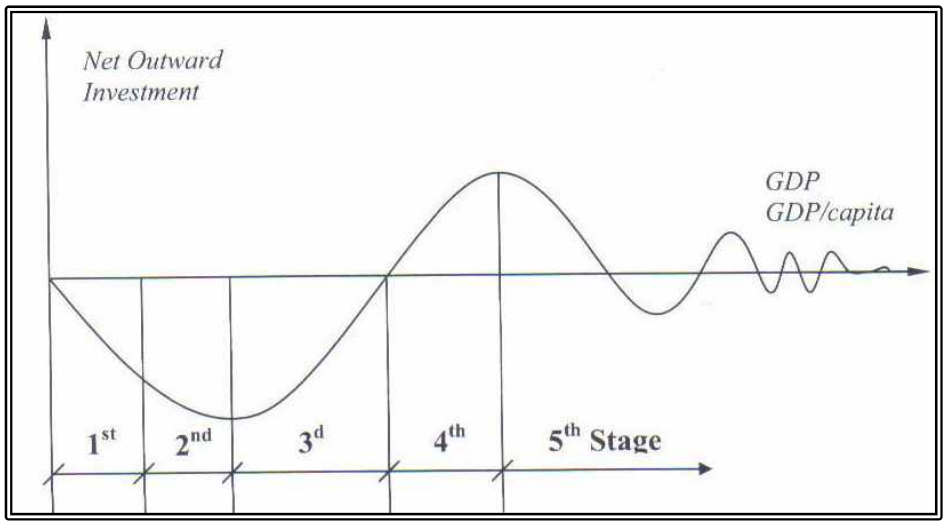
3. 우리나라 OFDI/IFDI 의 동태적 변화 추이와 상호 연계성 검토

가. 더닝의 절충이론과 투자발전경로 패턴

□ 더닝은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 나라 기업의 소유의 우위(ownership advantage), 내부화 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 그리고 입지적 우위(location advantage)가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이 일정한 패턴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고 주장함.

□ 더닝은 경제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이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함.

<그림 1> 투자발전경로 패턴



자료: Dunning and Narula(1996)

- 첫 번째 단계는 경제발전수준이 매우 낮아서(협소한 국내시장, 열악한 산업기반 등)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입지로서의 우위를 제공하지 못함.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입지적 조건이

향상되어 외국기업에 의한 자원개발, 수입대체산업, 더 나아가 값싼 비숙련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조업에의 투자가 이루어짐.

-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입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게 됨.

○ 이는 국내시장의 확대, 외국기업의 자회사로부터의 기술습득 등으로 인해서 국내기업의 소유의 우위가 향상되어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에 외국기업의 소유의 우위의 상대적 저하, 국내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임.

-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이 유입을 넘어서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제3단계에서 제4단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이 증가하면서 산업간 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산업내투자(intra-industry investment) 비중은 증가하기 시작함.

- 마지막 제 5단계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후 유출과 유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순유출이 0에 근접하게 되며, 선진국 간에 산업내 투자가 활발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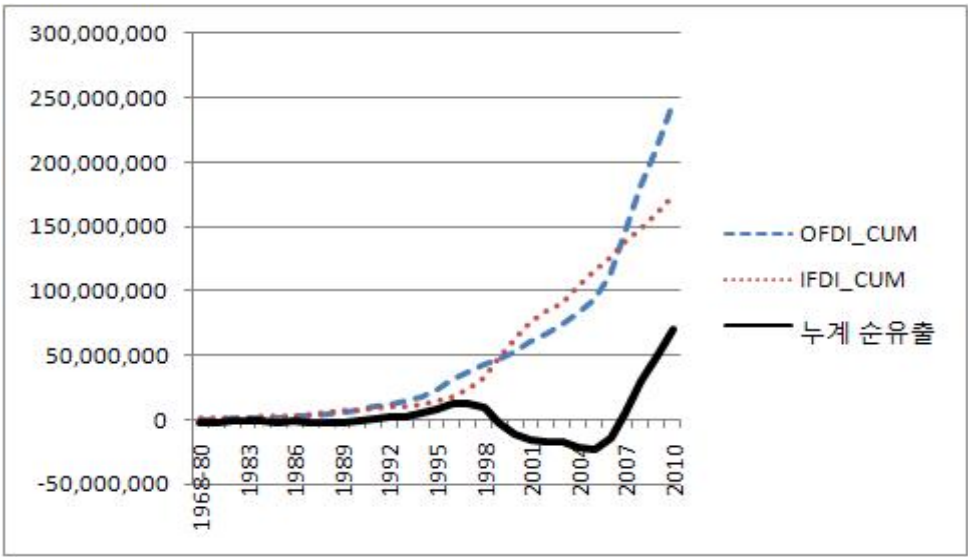
나. 우리나라 OFDI/IFDI의 동태적 변화추이와 상호연계성 검토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을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앞에서 살펴본 더닝의 절충이론에서 제시한 5단계 가운데 우리나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함.

□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여 순유출이 증가하는 제4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점차 양방향 투자가 균형을 이루어서 순유출이 0에 근접하는 제5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파악됨.

<그림 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추이(stock)

(단위: 천 달러)



자료: 해외직접투자는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식경제부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 2006-2007년에는 우리나라가 투자발전경로상 제3단계에서 제4단계(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이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을 초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이성봉, 2008),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4단계로의 이동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판단

- 제4단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제5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증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의 절대적인 규모도 작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면서 양방향 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 유출입 추이를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개별 산업들은 노동/자본집약도 및 기술수준 등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투자 유출입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보다 자세한 현황은 부록 참조).

- 우선, 노동집약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저급기술이 요구되는 섬유의류산업 등은 중국 등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 유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많지 않음.

○ 이는 동 산업에서 우리기업들이 소유의 우위를 확보한 반면 인금상승 등으로 우리나라가 입지의 우위를 상실한데에서 기인함.

- 한편, 비교적 자본집약도가 높고 어느 정도 고급기술을 요하는 전기전자, 운송기계, 기계장비, 금속 등의 제조업과 금융보험, 도소매, 운수창고, 비즈니스 등 서비스 산업에서는 양방향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상기 산업들에서는 우리기업들의 개도국 및 선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진국들과의 산업내 직접투자 지수도 높게 나타남.

○ 상기의 산업들에서 우리 기업들은 소유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 개도국 투자 진출을 활발하게 실행하는 동시에, 고급기술, 브랜드, 판매망 확보를 위한 선진국 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추진함.

○ 또한 국내에서도 상기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동 산업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고자 하는 선진국 기업들이 국내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마지막으로, 가장 자본집약도가 높고 첨단 기술을 요하는 화공, 의약 등의 산업에서는 우리기업의 직접투자 유출에 비해 선진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상기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소유의 우위를 강화하지 못해 직접투자 유출이 크지 않은 반면 소유의 우위를 이미 확보한 선진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요약하면, 개별산업들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대개도국 해외진출로 연결되는 동태적 과정을 경험함.

다. 상호 연계성 활용을 통한 양방향 투자 활성화 방안

□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투자발전경로(IDP)상의 제4단계(순유출 증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제3단계 국가(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 제4단계 국가(대만,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발전단계 국가) 및 제5단계 국가(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과와의 투자교류에서 양방향 연결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함.

1) 신흥국(emerging countries)에 대한 투자정책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제3단계에 있는 신흥국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전기전자 및 운송기계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 산업에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3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인접국으로의 해외투자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전자 및 운송기계 등의 산업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분업구조의 구축을 통한 양방향 투자의 순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상기 개도국들은 전기전자 및 운송기계 등 자본집약적·고급기술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할 것이며, 이들 산업에서 개도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소유의 우위를 갖추게 되면 점차 고급 기술 습득 등을 위해 인접한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시도하려 할 것임.

- 이들 신흥국들은 전략적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M&A 투자유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들 신흥국 기업들과 국내기업과의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해야 함.

<표 1> 대신흥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중점 대상국	중점 산업	정책적 초점
인접 신흥국 - 중국 - 인도 - 말레이시아	자본집약적 산업 - 전기전자 - 운송용 기계 등	국내기업과의 연계프로그램 지원

2) 선발개도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 우리나라와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선발개도국과는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투자 산업 부문에서 양방향 산업내 직접투자 증가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자, 운송기계, IT산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우리 기업들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갖추고 있는 부문에서는 소유의 우위를 활용하고자 그린필드형 투자를 선호할 것이며, 우리기업들로부터 전략적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M&A형 투자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개별 국가 및 산업별로 상대적인 경쟁적 우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나,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술수준을 가정할 경우 전략적 자산 취득

목적의 M&A형 투자를 많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와 같은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M&A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세제 및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투자 유치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표 2> 대선발개도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중점 대상국	중점 산업	정책적 초점
선발개도국 - 싱가포르 - 대만 - 홍콩 등	자본집약적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 운송기계 - 전자 - IT - 금융, 도소매, 운수창고 등	- M&A나 전략적 제휴가 용이한 환경 - 세제 혜택 및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 정책

3)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과 전기전자, 운송기계, 기계장비 및 금속 등 자본집약적인 제조업종과, 도소매,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종에서 산업내 직접투자를 활발하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부족한 첨단기술 집약적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 기업들의 경우 첨단 산업 부문 등에서 소유의 우위를 활용할 목적으로 국내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린필드형 투자를 선호할 것이며, 우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created asset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M&A형 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적인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가정하면, 선진국 기업들은 소유의 우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린필드형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점차 우리 기업들의 기술수준과 선진국 기업들의 기술수준 간에 격차(gap)가 좁혀질 경우, 전략적 자산 취득 목적의 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이 경우 created asset의 자유로운 국내외 이동 보장과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첨단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현지의 기술수용력이나 시장 형성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됨.

- 따라서 현재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초점을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 두되, 점차 우리나라의 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시장여건 개선과 M&A, 합작(joint venture), 협력(alliance) 투자 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 나가야 할 것임.[1)]

<표 3> 대선진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중점 대상국	중점 산업	정책적 초점
선진국 - 미국 - EU - 일본 등	첨단 제조업, 자본집약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 화공 - 의약 - IT - 전기전자 - 운송용 기계 - 금융, 운수창고, 비즈니스 등	- 전략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 M&A나 전략적 제휴가 용이한 환경 마련 - 국내기업과 선진국 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 FTA 활용

1) 최근 우리나라에 M&A 유형으로 투자한 기업의 추가적인 그린필드 투자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최초 M&A 투자액 대비 그린필드 투자액 비율 약 64%), M&A 투자기업은 단순히 지분인수만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기업을 재편,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나타남(장윤종, 2008).

- 또한 선진국과의 산업내 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과 FTA 체결 및 활용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선진국들이 체결하는 FTA는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외에도, 지적재산권보호와 같은 규범이 포함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주요 투자 업종(첨단산업 및 서비스)의 유치에 요구되는 전반적인 외국인투자환경 마련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위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른 비교우위의 변화와 기업들의 소유의 우위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여 산업별로 전략적인 투자 정책을 추진할 때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내 수직적 분업 및 협력 등을 이용한 산업내 직접투자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우리나라의 제5단계(투자성숙국) 진입과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길임.

4. 사모펀드 국제화를 통한 양방향 투자 확대 모색

가. 사모투자펀드와 외국인직접투자

□ 사모투자펀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활용성 측면에서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사모투자펀드가 국제화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사모투자펀드가 국경간 M&A형 FDI를 주도하는 선진국 경험은 사모투자펀드 시장의 활성화와 국제화가 우리나라와 주요 투자대상국 사이의 양방향 직접투자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함.

- 특히,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내 사모투자펀드의 국제화(예: 해외 법인설립 및 국제 M&A 참여)가 외국인직접투자

를 확대하는 메커니즘(국내펀드와 외국펀드의 공동 국내투자,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사모펀드의 개념 및 종류>

□ 사모펀드는 고위험(high risk)과 고수익(high return)의 원칙하에 비공개적으로 투자자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모집해서 부실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가치를 높인 후 재매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펀드를 지칭함.

□ 사모펀드는 세부적으로 buyout fund, venture capital fund, distressed fund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모펀드의 의미는 기업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분을 인수하는 buyout fund임.

나. 사모펀드에 의한 국제투자 동향

□ 사모펀드에 의한 FDI는 지난 2007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큰 타격을 받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 지난 2009년 사모펀드에 의한 국경간 M&A는 약 1,060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체 국경간 M&A의 약 19%에 상당함 (flow 기준).

- 이는 지난 2000년 사모펀드에 의한 M&A가 전체 M&A의 7%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지난 2007년 4,560억 달러로 전체 M&A의 27%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는 하락한 수치임.

<표 4> 사모펀드에 의한 국경간 M&A 추이

(단위: 거래건수, 금액)

연도	거래건수		거래금액	
	건수	전체 M&A에서 차지하는 비중(%)	10억 달러	전체 M&A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6	932	16	42	16
1997	919	14	54	15
1998	1,082	14	79	11
1999	1,283	14	89	10
2000	1,338	13	92	7
2001	1,246	15	88	12
2002	1,244	19	65	18
2003	1,486	22	108	27
2004	1,622	22	157	28
2005	1,725	19	205	22
2006	1,688	18	267	24
2007	1,906	18	456	27
2008	1,776	18	303	24
2009	1,987	24	106	19
2010 *	696	22	38	16

주 *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자료: UNCTAD, 국경간 M&A 데이터베이스

□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시점을 제외하면 최근 수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공장이나 판매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그린필드(greenfield)형 FDI의 비중이 줄어들고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 EU 등 선진국 기업들이 주로 이러한 글로벌 M&A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 기업들의 참여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음.

- 즉, 선진국의 유력 기업들이 사업영역의 확장을 위해 글로벌 M&A를 활용하고 있는 한편, 중국과 인도 등 후발 개도국 기업들도 자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글로벌 M&A 대열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등 선후진국 기업을 막론하고 글로벌 M&A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임.

○ 실제로 보스턴컨설팅사(BCG)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 글로벌 기업 M&A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작을 뿐만 아니라, FDI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15%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지식경제부 통계).

다. 사모펀드 국제화를 통한 양방향 투자 활성화 방안

□ 중장기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M&A에 대한 선후진국 기업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글로벌 M&A 투자활동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모펀드의 국제화를 통한 양방향 투자 증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국내 PEF가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그림 3).

- 첫째, 국내 PEF가 해외지사를 통해 투자한 외국기업이 국내에 그린필드형 투자를 하는 메커니즘(해외지사-외국기업-국내그린필드투자 경로 - A형)이 있음.

○ 2010년 중국 PEF인 Fosun International이 프랑스의 Club Mediterranee의 지분을 확보한 후 Club Meditterranee의 중국 투자를 지원한 사례가

A형 아웃바운드-인바운드 연결 투자에 해당 (Wall Street Journal, 2011.4.11)

○ 아직 A형 사례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사모투자펀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 A형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국내 PEF가 해외지사를 통해 투자한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메커니즘(해외직접투자-외국기업-국내M&A투자 경로 - B형)이 있음.

○ 아직 국내와 해외에서 B형 외국인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론적으로는 개연성이 높은 투자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셋째, 국내 PEF의 경우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므로 현지의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여 합작 PEF를 형성하여 양국에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메커니즘(해외직접투자-공동펀드-국내M&A투자 경로 - C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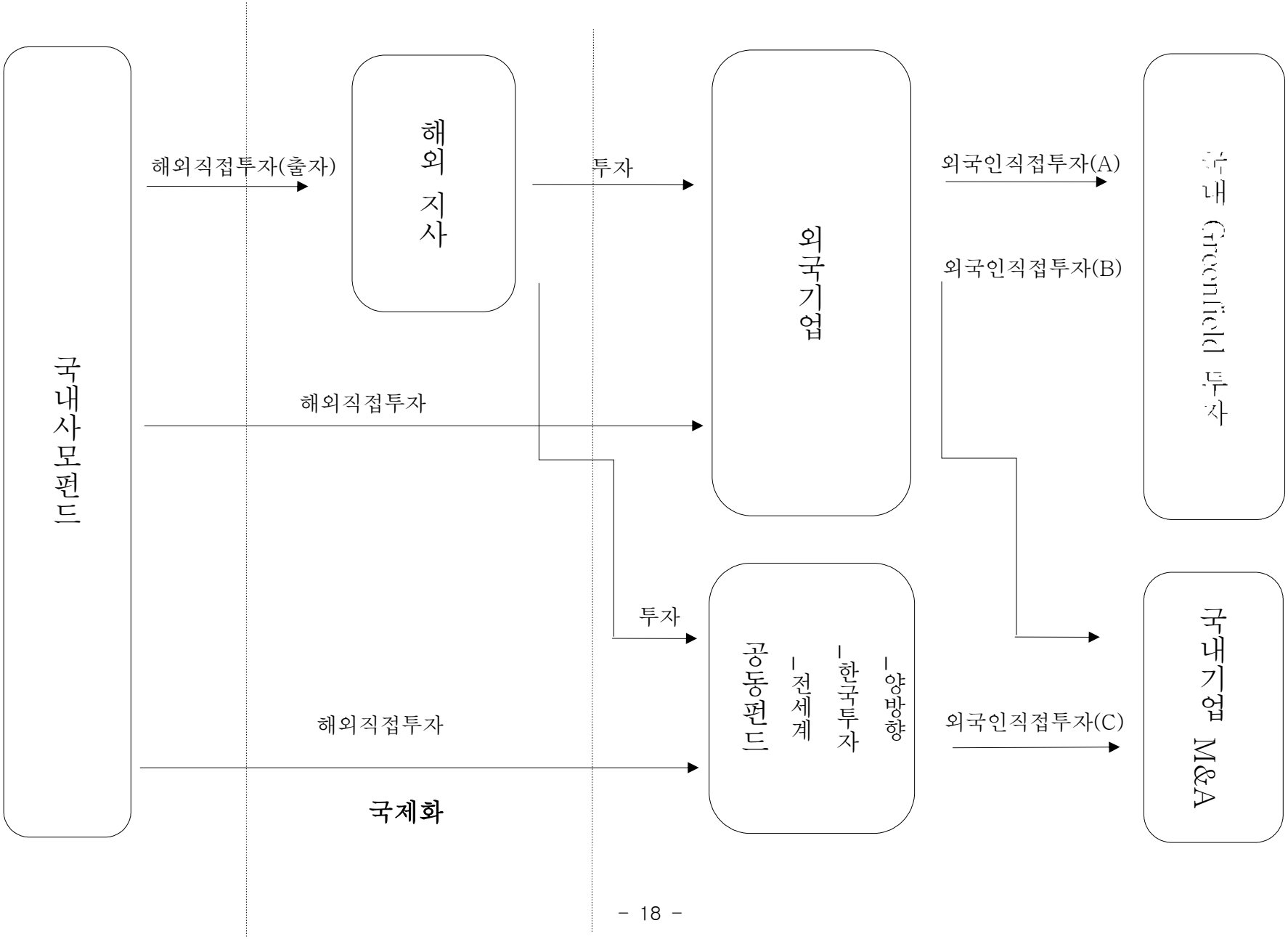
○ 최근 중국에서도 C 유형의 투자를 목적으로 중국 현지투자회사와 해외투자회사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협력을 적극 지지함.

○ 일례로, 최근 RIT Capital Partners와 중국 현지 투자회사인 Creat Group은 중국내 투자자로부터 7억 5,000만 위안을 모집하여 중국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해외 기업에 투자키로 함 (The Wall Street Journal, 2011.4.11).

○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 대기업인 Fosun과 미국의 Prudential Financial이 6억 달러에 달하는 달러화 펀드를 설립하여 중국시장에서 투자 전망이 좋은 중국기업 또는 해외기업에 투자키로 함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1. 4. 15). Fosun은 6억 달러 가운데 1억 달러만 투자키로 하였으나, 모든 투자 결정 권한을 보유함.

<그림 3> 사모투자 분야의 아웃바운드-인바운드 연결 메커니즘



□ 이와 같은 투자 경로를 고려할 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양방향 투자,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KOTRA 등 투자진흥기관은 다양한 국가에 설치된 현지 공관을 활용하여 해외 PEF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둘째, 상기의 투자 경로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장애가 되는 현행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셋째, 국내 민간 PEF가 해외의 공동 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국내 국책은행 등이 직접 해외 공동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해외투자 및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모펀드 설계와 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 국내통합관리와 국제협력을 통한 양방향 투자 활성화 방안

가. 통합관리를 위한 양방향 투자 제고 방안

□ 국내에서 양방향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증진 기관의 투자관리와 정책추진 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시스템의 한계점을 분석한 후 국내 유관 기관의 통합관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통계관리 체제를 보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자료정리와 국제기구 보고를 담당하고, 한국은행은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기획재정부는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의 수집, 정리, 보고 등을 담당

□ 국제투자 관련 주요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정책분야(자유화, 지원)를 분담하고 지원실무는 KOTRA가 담당

□ 통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은 여러 정부 부처가 양방향 투자 관련 통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 투자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에 있음.

□ 또한, 현 통계관리 체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수집하는 통계자료와 한국은행의 통계자료(OECD 보고 시)가 국제기고 보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 정책추진 체계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투자 지원정책의 권한을 양분하는 구도를 형성

□ 외국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단일 부처가 양방향 투자를 총괄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부처가 지원정책과 더불어 지원실무도 담당함.

- 통합관리의 경우, 단일부처 또는 단일부처+1개의 소속기관 또는 단일부처+2개의 소속기관을 통해 양방향 투자 지원정책과 지원실무를 총괄할 수 있음 (영국,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 보다 낮은 수준의 통합관리는 지원정책기능이 분산되어 여러 개의 주무부처가 제한된 지원정책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원실무는 일원화된 경우임 (중국).

- 가장 낮은 수준의 통합관리는 지원정책과 지원실무가 여러 개의 부처로 분산된 것임 (일본).

□ 통계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 데이터 수집 방법(financial

transaction 또는 survey)이 국제기준에 맞는 데이터 수집에 적합한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통계관리 체계인지, 통계 관리 영역과 관련하여 부서 충돌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통합적인 통계관리를 위해서는 1) FDI 전문 통계부서 모델, 2) 은행-타부서(주로 통계청) 협력 모델, 3) 투자기관 원스톱 통계서비스 모델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UNCTAD, 2009).

- FDI 전문 통계 부서 모델(highly specialized FDI authority)은 미국 모델('reference model')로서 통계 분석과 보고를 목적으로 통계 데이터 수집, 관리, 통제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시장개방적인 투자 규제 환경에 적합

- 은행-타부서 협력 모델(balance of payments authority)은 중앙은행이 외환거래 기록에 기반을 둔 거시경제 통계 데이터(국제수지, 국제투자대조표)를 수집하고 타부서(또는 중앙은행)가 정기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은행의 통계 역량을 상호 보완하는 모델임 (UNCTAD, 2009).

- 투자기관 원스톱 통계서비스 모델(Investment services agency approach: a one-stop service)은 투자진흥기관(IPA: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의 투자 주체, 대상, 관련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투자활동 뿐만 아니라 통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모델임.

□ 우리나라 정책추진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양방향 투자 추진 체계 시스템의 부재와, 정책 담당부서와 산하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구조의 부재로 인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역량 부족 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부처의 양방향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진흥기관의 아웃바운드 투자 기능을 강화하며, 정부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양방향 투자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1) 기획재정부의 지원정책기능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 2) KOTRA의 OFDI 지원실무기능을 강화, 3) 지식경제부와 KOTRA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또는 KOTRA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국제협력을 통한 양방향투자 확대 방안

□ 정부간 국제협력 차원에서 보면 한 나라의 해외투자지원활동은 상대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돕는 활동이기 때문에 양방향 투자를 촉진하는 활동임.

-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각 정부는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국제투자협정, 국제협력사업, 양방향 IR, 공동투자기금, 상호유치협력)과 민간 협력(공동투자기금)을 추진함.

□ 국제협력의 유형은 크게 정부간 협력과 민간 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정부간 협력으로는 투자협정, 상호유치협력, 양방향 IR, 공동투자기금 조성 등이 있고 민간 협력으로는 공동투자기금 조성이 있음.

□ 국제협력의 변화 추세를 보면, 국제협력의 목적이 기존의 투자 보장에서 투자 증진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유치협력, 양방향 투자설명회, 공동투자기금 조성 등의 활동이 대두되고 있음.

□ 또한, 투자증진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협정(양자간투자협정, 특히 자유무역협정)이 증가세에 있음.

6. 결론

□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양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 경제규모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바 양방향 투자의 연계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양방향 투자,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크게 1)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직접투자 균형 단계의 조기 진입을 위한 환경 조성, 2) 국내 PEF의 국제화를 통한 외국인적접투자 유치의 활성화, 3)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양방향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메카니즘을 통해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양방향 직접투자의 유기적이며 동태적인 관계를 잘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신진경제권으로 보다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김경, 1994,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태적 접근 방법으로서의 해외직접투자 분석, 국제경영연구.

김종섭 · 조윤아, 2006, “한국의 제조업 산업내 직접투자의 분석 및 산업내 무역과의 관계‘,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김희경, 2004,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여성경제연구」, 제1집 제1호, pp.109-127.

남광희 · 윤성훈, 2005, “우리나라 FDI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변재웅, 2009, “영국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의 성공요인 분석”, 「유럽연구」, 제27권 3호, pp.298-318.

사공목, 2006,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와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서봉교 · 구기보, 2009, “중국의 사모펀드 투자환경과 사례연구”, 「중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안유화, 2009, “중국 신시장인 창업판 개설과 중국 사모펀드시장 투자 방안”, 「재무관리논총」, 한국재무관리학회.

안충영, 2010, “외국인기업 직접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세미나 발표 논문.

이성봉, 2008,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제11권 2호, pp.73-99. 한국질서경제학회

장윤종, 2008, 「외환위기 10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특징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하병기, 2010,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및 구조적 특징」, 산업연구원.

한국국제경영학회, 2006, “글로벌리제이션과 외국인투자 정책”, 2006 한국국제경영학회 해외직접투자 심포지움 자료, 「국제경영연구」제17권 제4호.

한국금융연구원, 2008, “국제금융이슈: 싱가포르투자청의 사모투자펀드 활용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한국증권연구원, 2004, 「PEF 활용의 Best Practice와 정책적 시사점」.

----------, 2007, 「한국금융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현혜정 외, 2008,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2007, 「사모펀드 이야기」, 무공자료 07-50.

KOTRA, 2011, 「주요국가 해외투자편람」

KOTRA, 200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KOTRA 홈페이지, 2004, "싱가포르 FDI통계수치 입수가능 자료원에 대해“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Anil Kumar,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Help Emerging

Economies?", *Economic Letter,* FRB Dallas, Vol.2, No. 1, January 2007.

Dunning, J.H. 1981, "Explaining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Support of the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in Kumar, K. and M.G. 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 1986, "The Investment Development Cycle and Third World Multinationals", in K.M.Khan, ed., Multinationals of the South, Frances Printer Pub., London.

--------, 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pp. 1-31.

Dunning, J. H. and Narula, R. 1996, "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 Revisited: Some Emerging Issues", in Dunning, J.H. and Narula, R., ed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overnments: Catalysts for Economic Restructur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Grubel, H.G. and Lloyd, P. 1975, Intra-Industry Trade, London: Macmillan.

Kant, Chander, 1996,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apital Flight", *Princeton Studie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80. March 1996.

OECD, 2010, "Evolu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in the MENA Region", *Paper prepared for the MENA-OECD Working Group.* December 2010.

Rosen, Daniel H. and Hanemann, Thilo, 2009, "China's Changing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file: Drivers and Policy Implicatio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une 2009.

Private Equity Intelligence, 2009, “"Private equity fundraising in difficult times”", *Private Equity Sportlight*, October.

Standard & Poor’s, 2009, “"LBO Performance in Europe falls behind expectations as recession bites”", Ratings Direct, September 2009.

UNCTAD, 2006, "Investment Provisions in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Chapter two. 2006.

UNCTAD, 2006, "Systemic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IIA Monitor.* No.3. 2006.

UNCTAD, 2009,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2008-June 2009)", *IIA Monitor.* No.3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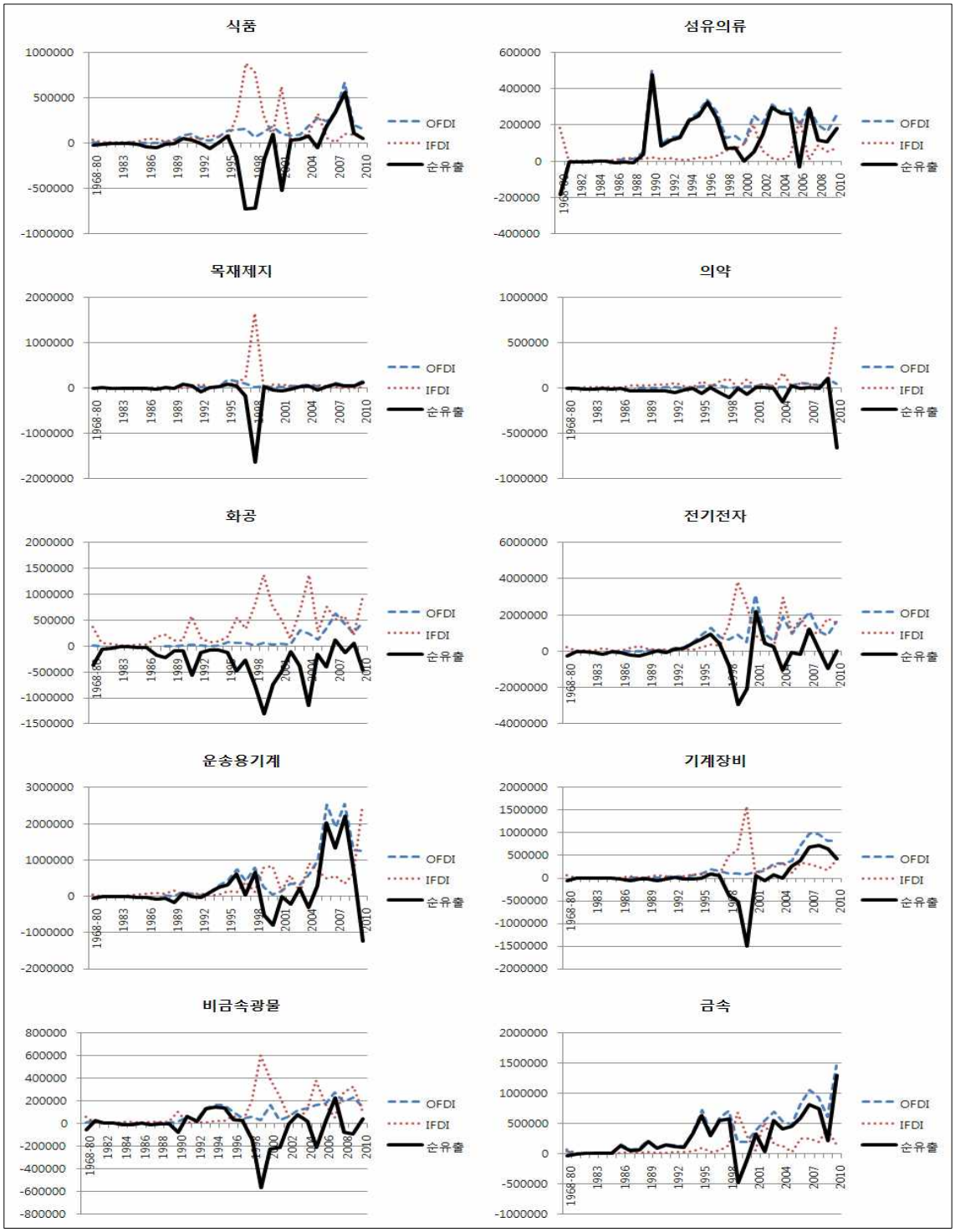
UNCTAD, 2008, "Investment Promotion Privis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UNCTAD Serie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UNCTAD, 2010,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부 록

<그림 1> 우리나라 제조업 세부산업별 순유출 추이(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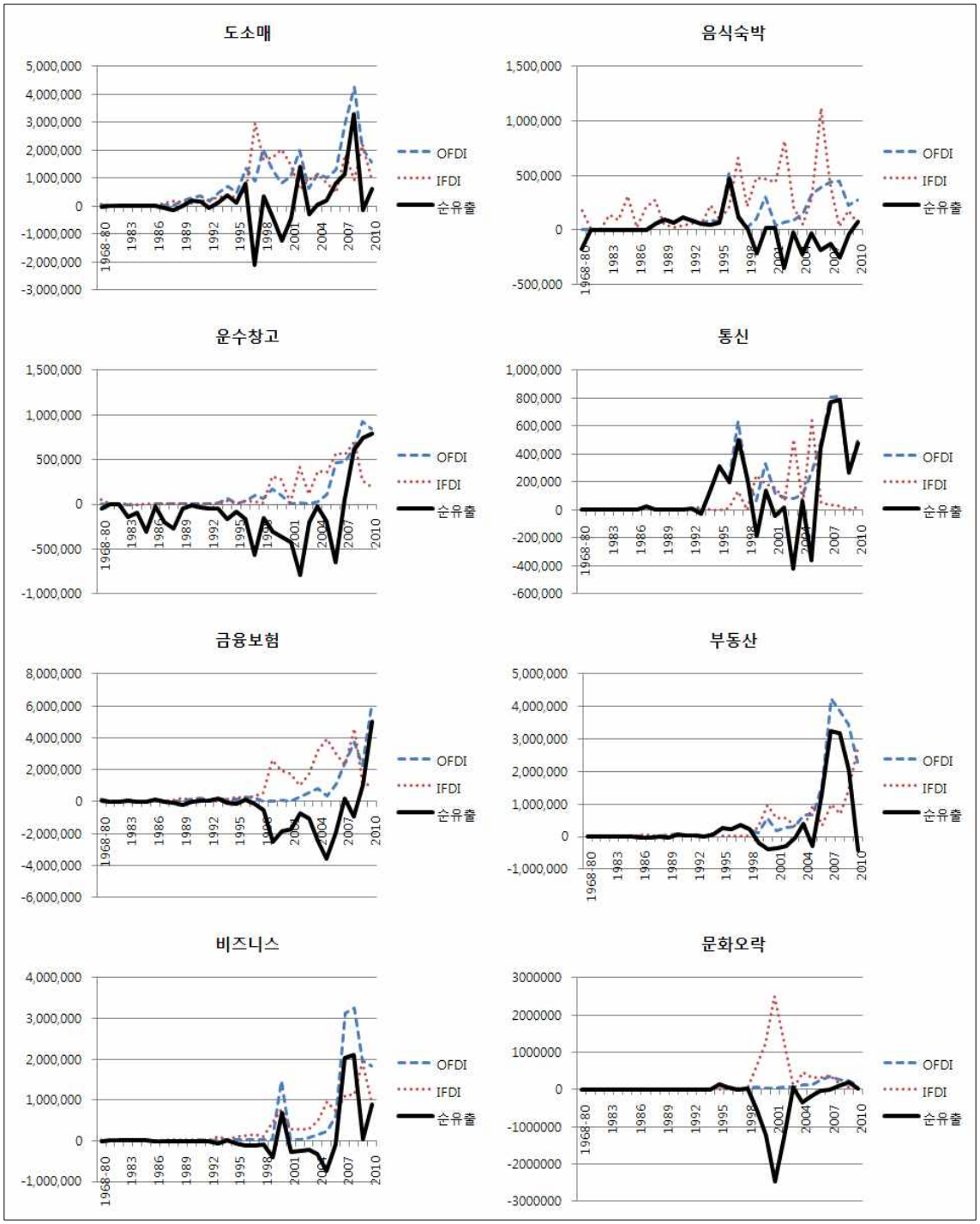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입은행, 외국인직접투자는 지경부 통계자료

<그림 2> 우리나라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직접투자 순유출 추이(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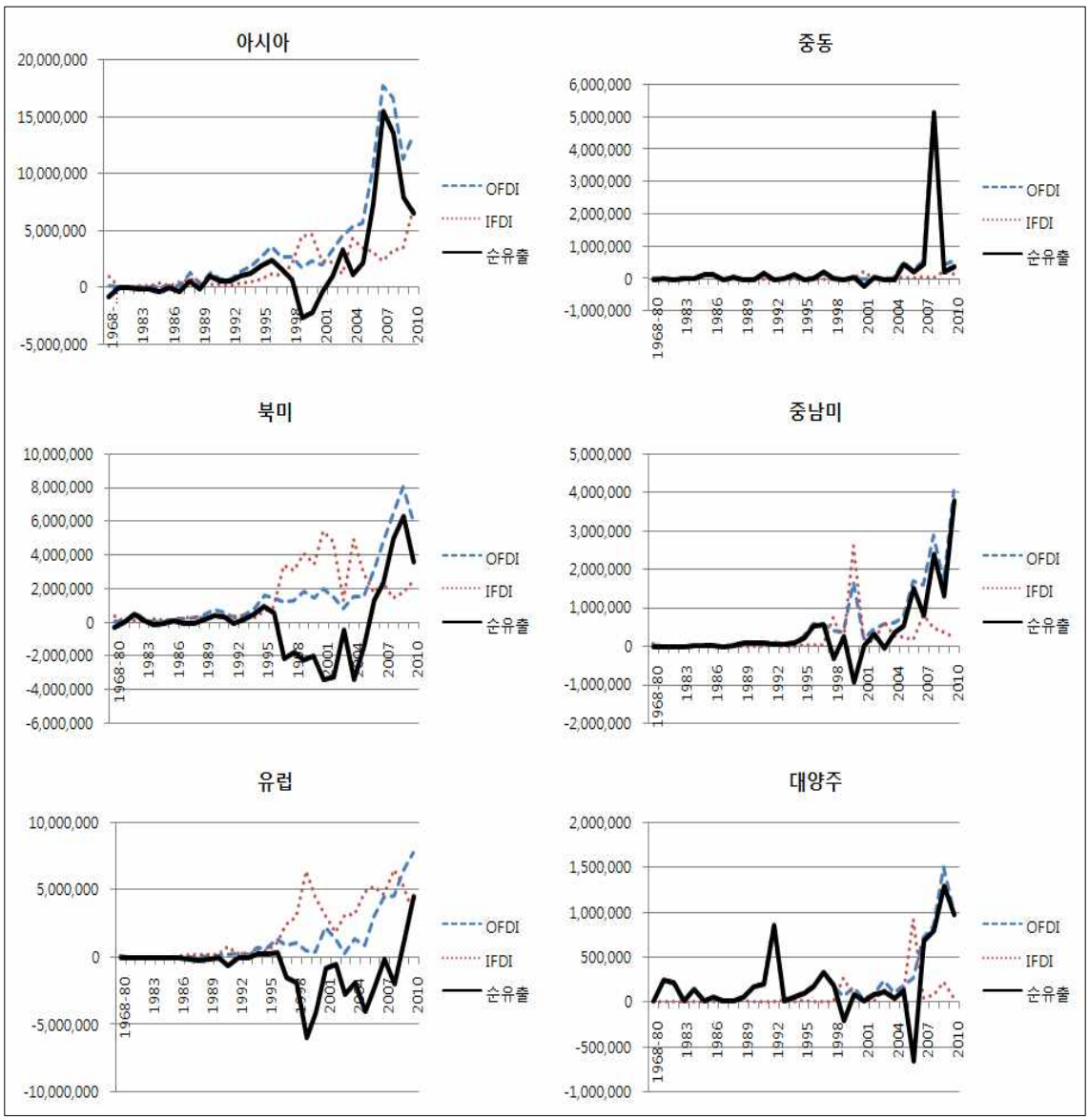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입은행, 외국인직접투자는 지경부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추이(지역별, flow)

(단위: 천 달러)



자료: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입은행, 외국인직접투자는 지경부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참고 1 연사 및 패널 주요 이력

1) 연사

성명	모 종 린	
직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학력	○ 코넬대 경제학 학사 (‘85) ○ 캘리포니아공과대 경제학 석사 (‘86) ○ 스탠포드대학 경영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 (‘92)	
경력	○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위원 (‘91~현재) ○ 텍사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92~’96)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96~현재) ○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소장 (‘99~’02, ‘08~’09)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부원장 (‘04~’05) ○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학장 (‘05~’08)	

2) 패 널

성명	이 성 봉	
직위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학력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89)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91) ○ 獨 만하임(Mannheim)대학교 경영학 박사 ('95)	
경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WTO팀장 ('97-'07) ○ 美 템플(Temple)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04-'05)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08) ○ 한국세무학회 국제조세연구위원장 (현)	

성명	정 형 곤	
직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력	○ 독일 본(Bonn)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석사 ○ 독일 쾰른(Köln)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선임행정관 ('03~'0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선임연구위원 ('06~) ○ 청와대 안보실,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정책자문위원 ('06~'07)	

성명	정 무 섭	
직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력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현) ○ 경기도 투자유치정책 자문관 ○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 연구원	
전공분야	○ FDI, 기업경쟁력, 신흥국 기업 ○ 경제 발전론, 인도경제	

성명	민 현 기	
직위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 전무	
학력	○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 (기계설계학과)	
경력	○ 동양창업투자㈜ 벤처투자본부 이사 ○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 반도체 장비, IT, 일반제조업 투자경력 다수 보유	

KOTRA 설명회자료 11-034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 정책

발 행 인 ▌ 홍 석 우
편 집 인 ▌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1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더 나은 사회를 향한 KOTRA의 **발걸음**

윤리경영 | 고객의 신뢰와 함께 하는 책임경영

KOTRA는 국내 본사 및 전 세계 76개국에 뻗어 나가 있는 111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항상 책임을 다하는 Global Citizen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Global Standard를 실현하기 위해 KOTRA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 실천규정을 준수하고 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지침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국제 사회공헌 | The world in Korea, Korea in the world

해외무역관을 갖고 있는 KOTRA의 특성을 살려서 전세계 각 주재국의 특성에 맞는 CSR 활동을 전개합니다. 일본 대지진시에는 피해지역에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아이티 지진시에는 구호단체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자폐아, 고아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이들을 상대로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사회에도 1사 1촌 활동, Adopt-A-Road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확충과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속의 당당한 한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녹색경영 | Clean KOTRA, Green KOTRA

KOTRA는 친환경제품 구매 및 녹색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린포럼, Green Hub Korea 2011, 녹색산업 협력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에게 녹색분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증대하여 녹색산업분야의 성장을 촉진 하고 있습니다.